

[해당 보도자료는 증권부 · 산업부에 동시 배포되었습니다.]

자이에스앤디, 공모가 5,200원 최종 확정... '공모밴드 최상단'

- ▶ 중소기업단지 공략한 주택개발사업 성장성, 부동산 연계사업의 탄탄한 수익성 인정받아 수요예측 성료
- ▶ 총 948개 기관 참여, 경쟁률 768.58대 1... 오는 28일~29일 청약 후 11월 6일 코스피 상장

<2019-10-24> 자이에스앤디가 공모가를 최상단으로 확정하며 수요예측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자이에스앤디(대표이사 김환열)가 지난 10월 21일과 22일 양일간의 국내외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진행한 결과, 공모가가 5,200원(공모밴드 4,200원~5,20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수요예측에는 국내외 총 948개 기관이 참여해 768.5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총 공모금액은 457.6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으며, 상장 후 시가총액은 공모가 기준 1,393억 원 수준이다. 오는 10월 28일~29일 양일간 청약을 진행한 후 11월 6일 코스피 시장에 입성한다.

상장을 주관한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자 대부분이 전략적으로 중소기업 단지를 타깃한 주택개발 사업의 잠재력과 부동산 연계 서비스 다각화를 통한 안정적 수익모델 등 구체화된 성장로드맵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며 "차별화된 사업 경쟁력을 기반으로 부동산 시장 침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수요예측을 성황리에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실제로 자이에스앤디는 업계 내 독보적인 수준의 실적 성장세로 이목을 끌었다. 부동산 운영, Home Improvement(부동산 부가서비스) 등 기존 사업으로 탄탄한 수익성을 갖췄고, 2018년 첫 진출한 주택개발 사업 또한 강력한 브랜드파워, 체계적 시스템 등 경쟁력을 인정받으며 빠르게 성과를 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자이에스앤디는 이번 IPO를 계기로 중소기업 단지를 타깃으로 한 주택개발 사업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국내 최초 환기형 공기청정 시스템 시스클라인(Sys Clein), 유상 리페어 서비스 등 수익성 높은 사업 영역을 확대함으로써 실적 고성장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자이에스앤디 김환열 대표이사는 "자이에스앤디만의 사업경쟁력과 성장성에 신뢰를 보내주시고 긍정적으로 평가해주신 국내외 투자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IPO를 계기로 타깃하고 있는 중소기업 부동산 시장 내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고 신규 사업과 해외 진출 등에도 속도를 높여, 투자자의 성원에 실적 성장으로 보답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

<참고자료>

[자이에스앤디 IPO 일정]

증권신고서 제출	2019년 9월 24일
수요예측	2019년 10월 21일 ~ 22일
청약	2019년 10월 28일 ~ 29일
코스피 상장	2019년 11월 6일

공모 주식수	8,800,000 주
주당공모가액	5,200 원
공모예정금액	457.6 억 원
공모후주식수	26,782,520 주
예상 시가총액	1,393 억 원

▣ 자료문의 : 자이에스앤디 김영현 팀장(02-6910-7019)

IR큐더스 한정선 이사 (02-6011-2000 #120) / IR큐더스 윤지희 책임 (02-6011-2000 #121)